

# 대통령의 레토릭과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

박영환 | 경북대학교

기존의 한국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정 의제 설정 및 대국민 설득과 같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상 대통령은 특정 이슈의 강조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그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그 이슈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어 대통령 지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문을 이용하여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priming) 효과를 분석한다. 시계열 분석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의 등락은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시도는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 연구의 영역을 넓혀 대통령 리더십 연구에 일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대통령 지지도, 레토릭, 프라이밍, 프라이밍 효과, 이슈의 중요성

## I. 서론

정부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보상-처벌모델(reward-punishment model)을 통하여 잘 설명할 수 있다(Ramirez 2009). 이 모델의 논리는 단순명료하다. 정부 기관의 업무수행이 시민들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시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지지도로 보상을 하며 그 반대일 경우 시민들은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해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처벌모델은 대통령의 지지도 연구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미국 시민들의 대통령 지지 여부는 대통령의 경제업무 수행과 대외정책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플러스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정치학 연구방법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논문을 완성하는 데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및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대통령을 보상하고 처벌하는 주요 평가 기준들로 경제, 외교, 안보상황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 업무 성과가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인플레이션(Monroe 1978; Mueller 1970), 실업률(Hibbs 1979; MacKuen 1983; Mueller 1970; Oneal et al. 1996), 경제성장(Kramer 1971; Fair 1978; Tufte 1978; Erikson 1989; Hibbs 2000) 등에 주목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의 관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집중해오고 있다. 다시 시민들의 경제상황의 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뉘질 수 있다. 개인적 수준과 국가 전체적 수준에서 경제평가의 차원과 경제평가에 대한 회고적 인식과 전망적 인식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차원과 수준에서 경제평가의 인식들은 유의미하게 대통령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e and Stewart 1994; Erikson et al. 2002; Kinder 1981; Kinder and Kiewiet 1981; MacKuen et al. 1992; Norpoth 1996 등).

외교 및 안보 상황과 미국 대통령 지지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요인들에 주목한다. 첫째는 미국의 대외전쟁 참여 여부다(Mueller 1970).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시민들은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대외전쟁의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 미국 군인들의 전사자수와 대통령의 지지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Kernell 1978; Oneal et al. 1996; Ostrom and Job 1986). 대체로 전사자 수와 대통령의 지지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또 대외정책의 성공적인 수행도 대통령의 지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Nickelsburg and Norpoth 2000). 마지막으로 국기아래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와 대통령 지지의 관계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외교·안보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위기상황이 극복되기를 열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표출된다는 것이다(Baker and Oneal 2001; Brody and Page 1975; Eichenberg et al. 2006; Erikson and Tedin 2010; Hetherington and Nelson 2003; Lee 1977; Mueller 1973; Norpoth 1984). 그러나 결집효과가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를 설명하는 위의 두 가지 요인들 외에 국내정치적 및 기타 상황적 조건들도 중요하다. 첫째는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로서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는 국민들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높은 기대감, 언론이나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자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다(Erikson and Tedin 2010; Kernell

1978; Mueller 1970; Norporth 1996). 허니문 효과 역시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대통령의 지지도의 관계와 관련해서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전용주 2006; 문우진 2012)은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경과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정책들이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정책 시행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소수들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과 대통령 임기 초반 대통령 업무수행에 과도하게 기대를 건 시민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산출되는 정책의 결과물이나 정책집행과정에 실망을 하기 때문이다(Muller 1970; Sigelman and Knight 1983; 가상준 2006; 전용주 2006; 조성대·한귀영 2010).

둘째는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파적 요인에 의해 조절되는 경향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보상과 처벌은 시민들의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McAvoy and Enns 2010 참조). 민주당(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높은 경제적 실적을 보여주더라도 공화당(민주당)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민주당(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한 사건들도 대통령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Watergate) 스캔들은 닉슨 대통령 지지도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에 관한 연구는 미국학자들이 이루어낸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준(2006)은 국가 경제 상황의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 지지도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 허니문 효과, 정치적 의혹(사건)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기아래 결집효과와 개인 경제 평가 및 개인 경제 전망에 대한 영향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용주(2006)는 대통령 재임기간이 경과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전체적인 패턴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가 경제 상황의 평가, 정치적 사건, 언론 보도가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밝혀냈다. 가상준·노규형(2010)은 경제 상황 조건을 더욱 세분화하여 국가 경제 상황과 개인 경제 상황으로 먼저 나누고 다시 회고적 차원과 전망적 차원으로 나누어 경제 상황 조건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경험적 결과 회고적 국가 경제 평가와 회고적 개인 경제 평가, 그리고 전망적 개인 경제 평가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의 허니문 효과와 정치적 사건의 부분적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성대·한귀영(2010)은 정당지지, 경제상황, 대통령 지지의 동태적 관계 모델 설정을 통하여 집권당 지지

울의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하면서 일시적인 반면 야당의 지지율은 약하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국가 경제상황의 전망도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문우진(2012)은 주인-대리인 모델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주인)의 대통령(대리인)이 내건 유인적 가치(valence) 이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점차 소멸되면서 결과하는 대통령 지지의 필연적 하락을 '주인의 위임 실패' 또는 '대리인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대통령 지지율을 모은 집합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계열분석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시계열분석은 대통령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변화와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하락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Edwards et al. 1995, 108). 그러나 기존 대통령 지지도 연구의 문제점은 대통령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여론 조성을 위하여 대국민 접촉을 강화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Kernell 1997; 이한수 2012). 이러한 노력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연구는 변화무쌍한 정치 환경에 개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연구가 대통령 레토릭(rhetoric)의 프라임(priming)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한국의 연구에서 대통령 레토릭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프라임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대통령의 레토릭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프라임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Druckman and Holmes 2004; Druckman et al. 2004; Kelleher and Wolak 2006). 이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 나타난 레토릭을 통하여 어떤 이슈들이 프라임(prime)되고 그 프라임된 이슈가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현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은 선행 연구에서 설명한 요인들 외에 대통령의 의제 설정과 특정 이슈의 프라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너스태드(Richard E. Neustadt 1990)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모든 부문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은 시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밀받침될 때 더욱 합법적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책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과 의회의 도움 및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가상준 2006; 가상준·노규형 2010; 전용주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도의 원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필요불가결하며 한국 대통령의 레토릭의 연구가 한국 대통령학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II. 프라이밍, 이슈의 중요성,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은 국정 어젠다 설정과 대통령에 호의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원이 대국민 호소와 설득을 위한 대통령 연설이다(Brace and Hinckley 1993; Edwards and Eshbaugh-Soha 2000). 대통령 연설은 국정 어젠다 설정과 시민들의 설득을 위한 유용한 도구다(Cohen 1995; Druckman and Holmes 2004). 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어젠다 설정 파워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이슈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대통령이 강조한 이슈의 특정 측면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일치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어젠다 설정 파워는 프라이밍 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프라이밍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프라이밍이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미디어나 대국민 레토릭을 통하여 여러 이슈들 중 특정 이슈를 강조하면 시민들은 그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이슈들보다 그 이슈에 더 관심과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그 이슈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Iyengar et al. 1984; Iyengar and Kinder 1987; Miller and Krosnick 200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이슈들 중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또는 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자신이 있는 이슈를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시민들의 그 이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 업무 평가에 대한 도구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지율 상승을 꾀한다는 것이다.

아이엔거와 킨더(Shanto Iyengar and Donald R. Kinder 1987)의 연구에 의하면, 언론 매체로부터 국방 정책에 관한 뉴스에 노출된 시민들은 대통령의 국방 정책 수행 평가에 근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방 정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평가가 내려지면 시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교육 정책에 관한 뉴스에 많이 노출된다면 시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교육 정책의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프라이밍 효과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특정 이슈를 강조하여 그 이슈에 특별 비중을 두게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기반을 하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Druckman and Holmes 2004). 프라이밍 효과가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다양한 이슈나 기준들을 포괄적으로 결합시킬 능력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Miller and Krosnick 1996). 따라서 대통령이 레토릭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특정 이슈를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하거나 많이 노출되게 만든다면 그 이슈는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 평가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의 지지도를 프라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양원합동연설문을 활용하였다(Cohen 1995; 1997; Druckman and Holmes 2004; Hill 1998). 특히 드릭맨과 홈스의 연구(Druckman and Holmes 2004)가 주목할 만하다. 코헨(1995; 1997)의 대통령 레토릭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드릭맨과 홈스는 2002년 부시의 양원합동연설에서 어떤 이슈가 강조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부시가 양원합동연설에서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를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실제로 양원합동연설에서 안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면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더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부시가 안보 이슈에서 시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로서는 그 이슈를 더 강조할 전략적 유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Druckman and Holmes 2004). 즉 부시는 그에게 강점이 있는 이슈를 프라임해서 국민들로부터 그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Druckman and Holmes 2004).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는 비단 대통령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레토릭을 통하여 이슈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1988년 캐나다 총선에서는 퀘벡주 독립문제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 문제가 첨예한 이슈들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 정파들은 FTA 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면서 FTA 비준 문제가 1988년 캐나다 총선 결과를 가늠하게 하는 주요 이슈로 만들어 버렸다. 보수당의 리더 멀로니(Brian Mulroney)는 FTA 찬성을 자유당의 리더 터너(John Turner)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두 후보와 두 정당 간의 FTA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선거 기간 내내 핫이슈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퀘벡주 분리 독립 문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밍 효과다. 캐나다 유권자들은 헌법 해석과 결부된 분리 독립 문제의 난해하고 복잡한 이슈 대신 정파 간 명확히 대비되는 정책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한결 이해하기 쉬운 FTA 비준 문제에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의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캐나다 유권자들은 FTA에 대해 각 정파들로부터 특정 이슈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그 이슈의 어떤 측면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지를 쉽게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논문은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활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연설에 드러난 특정 이슈의 레토릭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결부하여 대통령 지지를 시민들로부터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우선 과제와 실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주례 연설이 있고 난 뒤, TV 뉴스,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뉴스 매체들은 앞다투어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보도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뉴스 매체들의 보도 경쟁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가 무엇이고 대국민 설득을 위하여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연구하는 데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은 더없이 좋은 분석대상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대통령 레토릭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살펴본다.

### III. 대통령의 레토릭 데이터와 시민들의 주요 이슈 데이터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은 대통령 레토릭의 측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을 선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13일에 처음 라디오 연설을 시작한 이래 2012년 8월 말까지 총 95차례 행하였다. 대체로 2주 간격으로 라디오 연설을 하였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당면 현안들과 주요 정책 추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였다. 95차례의 라디오 연설 중 주례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여러 이슈들을 같이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이슈들(이를테면 일자리 문제, 중도실용 문제, 안보 문제, 친환경 문제, 대북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선정해서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하여 어떤 이슈들이 대통령에 의하여 프라임(prime)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라디오 연설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95차례 라디오 연설을 행하는 동안 어떤 이슈들이 등장, 반복, 재강조 되고 있는지를 시간적 추이를 통하여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대통령 레토릭의 구체적인 측정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선행연구들(Cohen 1995; 1997; Druckman and Holmes 2004; Druckman et al. 2004)은 대통령 연설문을 몇 가지 정책 영역별로 범주화시켜서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코헨(1995; 1997)은 1953년에서 1989년까지 미국 대통령의 양원합동연설문을 크게 네 가지 정책 영역별—대외정책, 경제정책, 민권정책, 국내정책—으로 나누어 대통령의 레토릭을 분석하였다. 드릭맨과 홈스(2004)는 부시 대통령의 2002년 양원합동연설문을 크게 전쟁, 테러리즘/안보, 경제, 기타 국내정책, 기타 대외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를 따라 각 정책 영역별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행한 연설문을 내용 분석하여 어떤 이슈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였다. 내용 분석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라디오 연설문의 각 ‘문장’(sentence)을 단위로 해서 어떤 이슈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찾으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내용 분석하면서 정책의 범주화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세 가지 영역은 경제 정책, 국내 정책(복지, 환경, 교육, 다문화, 과학기술, 정치, 지방자치 등) 그리고 외교/대북/안보 정책이다. 매월을 분석 단위로 하여 연설문의 각 문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밝혀낸 다음 그 빈도수를 세 가지 정책 영역별로 코딩하였다. 즉, 세 가지 정책 영역별로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슈 언급을 연설문의 각 문장 단위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대통령 연설문에서 물가 문제를 강조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것은 경제 정책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코딩을 하였다.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면 이것은 외교/대북/안보 정책에 코딩을 하였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하는 문장은 국내 정책에 코딩을 하였다.

각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이슈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경제는 일자리, 물가, 실업, 중산층, 중소기업,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집값 등이다. 국내 정책에는 복지, 보육,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친환경, 기후변화, 저탄소, 공교육, 사교육, 학교폭력,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다문화, 신재생 에너지, 공정사회, 중도실용, 지방자치, 지역균형, 정치개혁, 사회통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외교/대북/안보는 정상회의(담), 외교, 한미동맹, FTA, 원조, 대북, 국방, 안보, 북핵,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격, 미사일, 통일 등이 포함된다. <표 1>에 각 정책영역별 구체적 이슈 측정대상이 정리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문은 청와대



〈표 1〉 정책영역별 구체적 이슈 측정대상

정책영역별	구체적 이슈 측정대상
경제	일자리, 물가, 실업, 증산층, 중소기업,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집값, 고용 등
국내정책	복지, 보육,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친환경, 기후변화, 온난화, 저탄소, 공공육, 사교육, 학교폭력,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다문화, 신재생 에너지, 공정사회, 중도실용, 지방자치, 지역균형, 정치개혁, 사회통합, 국민통합 등
외교/대북/안보	정상회의(담), 외교, 한미동맹, FTA, 원조, 대북, 국방, 안보, 북핵,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격, 미사일, 통일 등

홈페이지에 링크되어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 수집 작업은 시민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다. 이것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프라이밍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 정의를 내린 것처럼,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프라이밍 효과란 대통령이 레토릭을 사용해서 특정 이슈를 강조하면 시민들은 그 이슈가 그들에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이슈가 그들의 당면 현안 인식에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레토릭 데이터와 별도로 시민들이 당면 현안에 대한 중요성 여부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갤럽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the most important problem)을 조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나 여론연구기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sup>1)</sup> 따라서 이를 대체할만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차선의 방편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을 선택하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에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이슈가 주 관심사인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솔직 과감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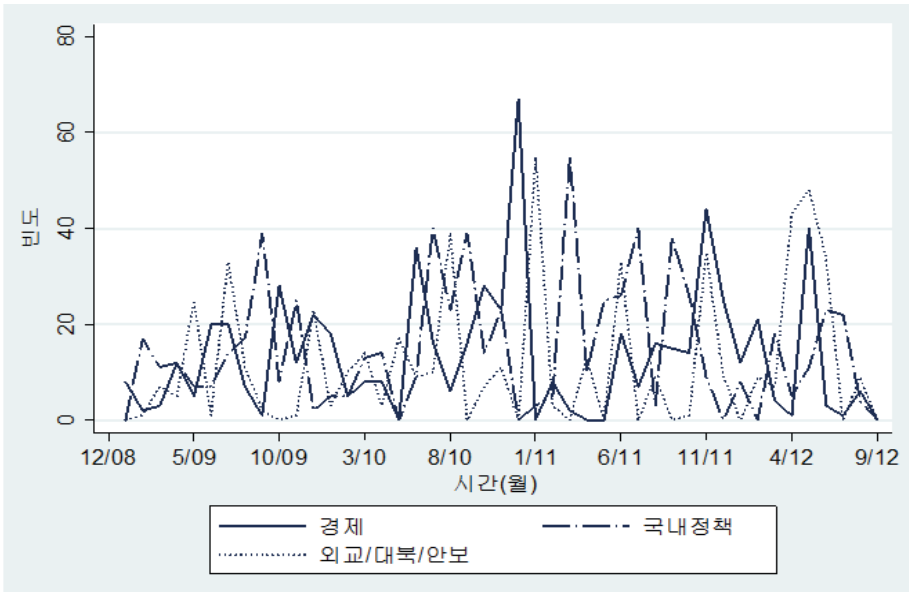
1) 예외로 아산정책연구원(2013)에서 2011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이라는 문항으로 당면 주요 이슈들을 측정하고 있다. 이 조사는 미리 5개의 항목(일자리 창출, 소득의 재분배, 남북관계 및 안보, 교육문제, 민주주의 발전)을 정해서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 분석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항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라는 문항으로 한국의 당면 과제를 조사해오고 있다.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한국의 시민이라면 한국의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과 관심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나아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당면 현안으로 측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처럼 대통령제 정치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이며 의제 설정과 추진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주지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을 활용할 유인을 가진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있는 의사표현의 공간을 통하여 대통령은 민의를 감지하게 되고 여론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지지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의 글들을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으로 측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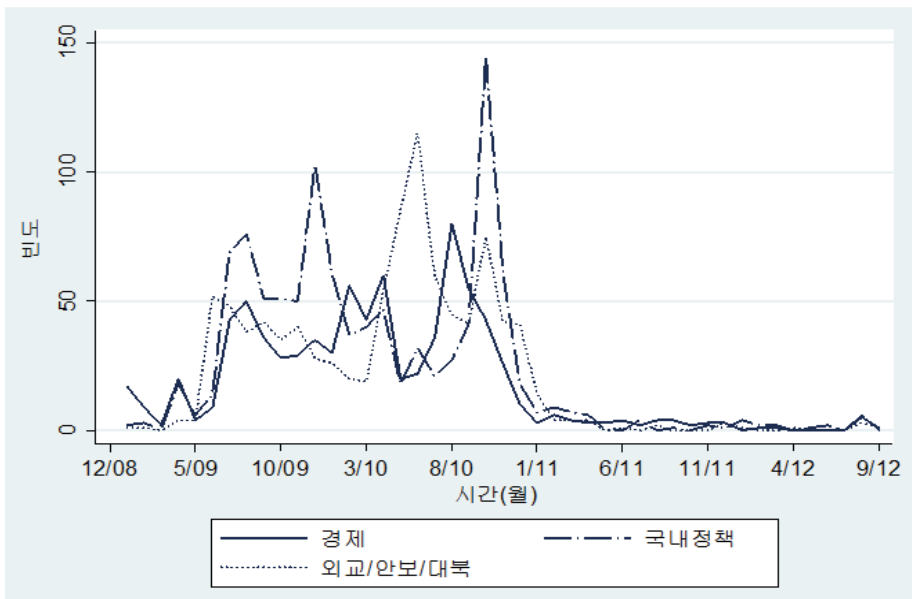
물론 시민들이 올린 게시판의 글은 오히려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또 대통령의 연설과 청와대 게시판의 글 모두 그 시점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대통령과 시민들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와대 게시판의 성격에 비추어 시민들이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들의 솔직 과감한 의견들을 올린 것은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고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 관심사가 되어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글들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인 측정방식은 대통령의 레토릭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을 단위로 하여 세 가지 정책 영역별로 게시판에 올려진 이슈 관련 글들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천안함 침몰에 관한 글이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외교/대북/안보영역에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코딩하였고, 실업 문제는 경제에, 공정사회 문제는 국내 정책에 코딩을 하였다. 참고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2008년 12월에 개설되었으므로 2012년 8월까지의 월 단위는 45개가 된다.

〈그림 1〉, 〈그림 2〉는 대통령의 레토릭 데이터와 시민들의 주요 이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적 추이에 따른 세 가지 정책 영역별 빈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시계열에 따른 대통령 레토릭의 정책 영역별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세 가지 정책 영역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터 후반기까지 대체로 골고루



〈그림 1〉 대통령의 레토릭 변화의 시간적 추세



〈그림 2〉 시민들의 당면 현안 인식 변화의 시간적 추세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는 대통령이 경제적 이슈들을 제일 많이 강조하였고 뒤이은 2009년 2~3월에는 국내 정책 이슈들을 많이 강조하였다. 2009년 5월에 들어서는 외교/대북/안보 관련 이슈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무렵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각 이슈별 언급 강도는 2012년 8월까지 데이터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또 각 이슈들을 골고루 강조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경제 이슈를, 2011년 1월에는 외교/대북/안보 이슈를, 2011년 4월에는 국내 정책 이슈들을 각각 가장 강조하였다.

시간적 추이에 따른 그래프의 전체적인 패턴은 어떤 한 이슈가 장기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강조되지 않았으며 여러 이슈들이 골고루 다른 시간대에 각각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 시점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설득 작업을 펼치면서 해당 이슈들을 프라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2009년 후반과 2010년 초반을 제외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체로 각 정책 영역별 의제 수행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나 대국민 설득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당면 현안들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특정 이슈가 전 기간 동안 시민들의 당면 현안으로서 지배적이지 않았다. 바꾸어 말해 시간을 달리하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면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일반 시민들의 정책적 열망이나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시간을 달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의 위기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2008년 후반과 2009년 1~2월에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슈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2010년 3~5월에는 천안함 침몰의 여파로 외교/대북/안보 이슈가 국민들에게 시급한 현안이었다. 2010년 8~9월에는 중도실용, 공정사회와 같은 국내정책 이슈들이 국민들에게 화두였다.

한편 대통령의 의제 설정을 위한 대국민 설득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의제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2008년 후반 대통령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강조는 같은 기간 시민들의 주요 현안으로서 경제 이슈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게 하였고, 2009년 후반에는 국내 정책들이, 2011년 1월에는 외교/대북/안보 이슈들이 대통령의 레토릭과 시민들의 당면 현안으로서 서로 반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2011년 1월 이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들

어서면서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정책반응이 약해지고 또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이해의 관심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대통령의 레토릭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방법과 시계열분석을 통한 대통령의 레토릭의 강조 패턴과 시민들의 당면 현안 인식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가설과 모델, 통계적 검증 방법을 살펴본다.

#### IV. 가설, 모델, 방법론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분석의 대상은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 즉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 같은 데이터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의제설정과 여론 조성을 위한 전략적 유인은 프라이밍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선행연구의 대통령 레토릭 측정 방식에 따라 대통령 연설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정 이슈들에 주목한다. 대통령은 특정 이슈에 대한 강조, 반복된 언급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왜 그 이슈가 다른 이슈들보다 더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려 노력한다. 시민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통령의 레토릭의 강조와 부합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대통령의 특정 이슈의 강조와 시민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서로 부합할 때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위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경험적 모델은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된 모델이 필요하다:

$$\begin{aligned}
 Y_i =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beta_6 X_{6i} \\
 & + \beta_7 X_{1i} X_{4i} + \beta_8 X_{2i} X_{5i} + \beta_9 X_{3i} X_{6i} \\
 & + \sum_{j=1}^k \beta_j X_{ji} + \varepsilon_i, \quad (i = 1, \dots, n)
 \end{aligned} \tag{1}$$

(1)에서  $Y$ 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X_1, X_2, X_3$ 는 이슈영역별 대통령 레토릭의 변수들로서 각각 경제, 국내 정책, 외교/대북/안보 변수들이다.  $X_4, X_5, X_6$ 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당면 현안 변수들로서 각각 경제, 국내 정책, 외교/대북/안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상호작용 변수들은 대통령의 레토릭 변수들과 시민들의 주요 이슈 변수들을 결합한 것이다.  $X_1X_4$ 는 경제의 상호작용 변수이고,  $X_2X_5$ 는 국내 정책의 상호작용 변이고,  $X_3X_6$ 은 외교/대북/안보의 상호작용 변수다.  $j = 1, \dots, k$ 는 앞의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 변수들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이다. 에러항  $\varepsilon$ 은 평균 0과 표준편차  $\delta$ 를 가지며 독립정규분포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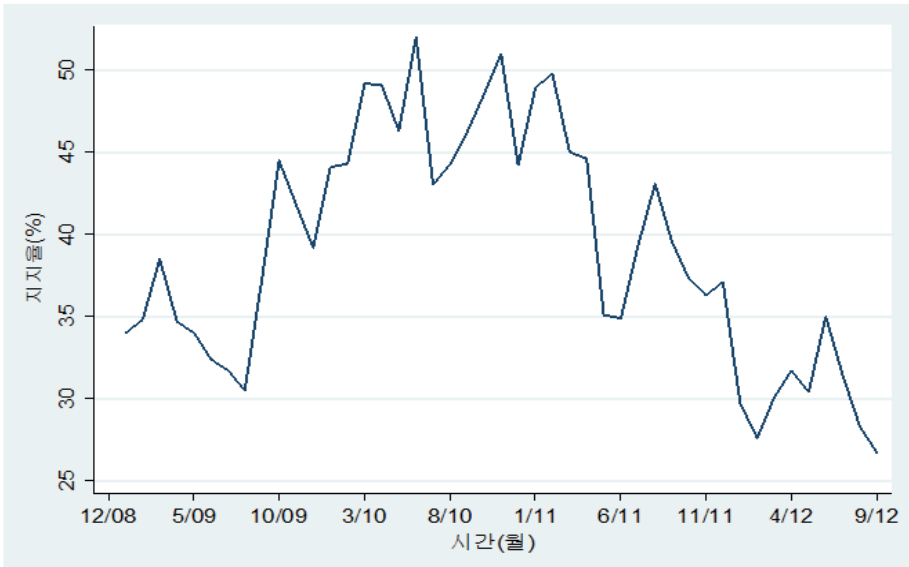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따라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가 전체 경제상황을 측정한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전망적 평가도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들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주요 사건들 역시 대통령 지지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이다. 전용주(2006)의 연구에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측정 방식을 따라 대통령 지지율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긍정적 사건으로, 반대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은 부정적 사건으로 코딩을 하였다.<sup>2)</sup> 주요 정치적 사건들의 데이터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브리핑 자료(2013)와 한국갤럽의 데일리 정치지표(2013)를 활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사건들의 내용은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국기아래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변수는 대북 관련 안보위기 사건들을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브리핑 자료와 한국갤럽의 데일리 정치지표를 사용하여 이 국기아래 결집효과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이 변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안보위기 사건들로는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다. <부록 2>에 국기아래 결집효과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아시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sup>3)</sup>

2) 부정적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하였던 최고기 파동은 논문의 분석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또 허니문 변수도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3) 논문을 쓰던 당시 매월을 기준으로 총 45개 케이스의 대통령 지지율이 필요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 케이스(2008년 12월)부터 44번째 케이스(2012년 7월)까지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2013)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2년 8월(마지막 케이스)의 이명박 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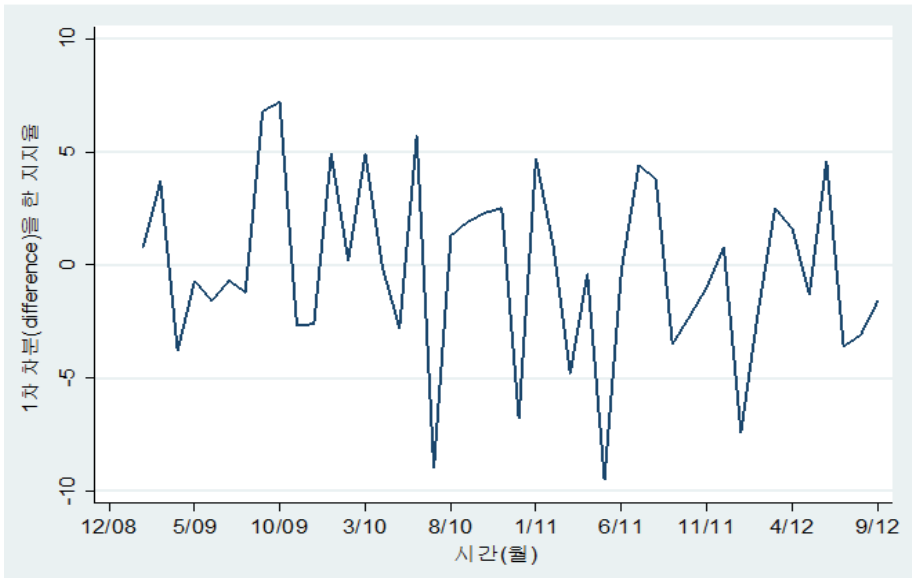




〈그림 3〉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008년 12월~2012년 8월)

이 논문의 데이터는 월별을 단위로 하여 여러 변수들을 측정된 시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진 회귀분석은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시계열 데이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관측치 오차항들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제를 OLS 회귀 분석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Wooldridge 2002).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박스-젠킨스(Box-Jenkins)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박스-젠킨스 시계열 회귀분석은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autoregressive-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시계열 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여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계열(stationary)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비정상계열(non-sta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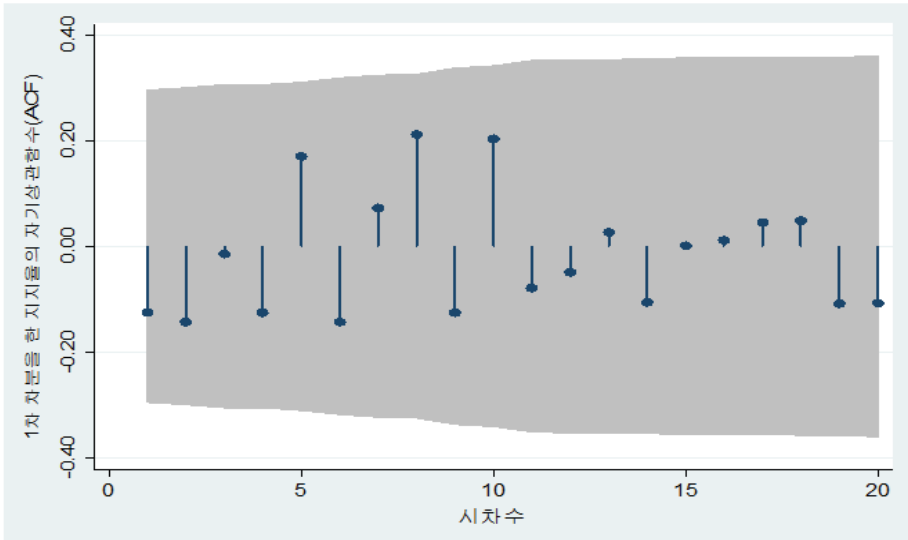
령 지지율은 당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아직 리포트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아시아연구원의 자료(2013)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4번째 케이스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8.3%였고, 45번째 케이스의 대통령 지지율은 29.7%였다. 1~2퍼센트 내외의 지지율 변동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주 나타났으며 마지막 케이스의 지지율로 사용된 동아시아연구원 자료도 전체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에 큰 파격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의 결함과 정에서 오는 다른 표본의 가능성으로 인한 서로 다른 경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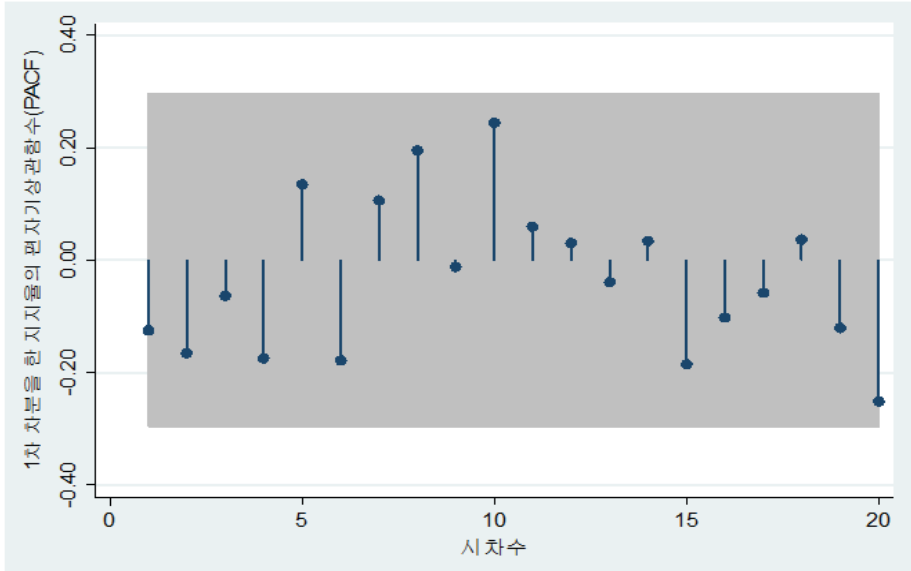
〈그림 4〉 1차 차분(difference)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008년 12월~2012년 8월)

이라면 정상계열로 바뀌어야 한다. 디키-풀러(Dickey-Fuller) 테스트를 통하여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계열임을 확인하였다( $Z(t) = .0000$ ).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계열인지 비정상계열인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래프를 통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림 3〉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시계열 그래프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대로 주기가 불규칙적이고 전체적인 패턴이 2011년 2월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비정상계열이라고 판단내릴 수 있다. 비정상계열을 정상계열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차분(difference)을 취하는 것이다. 1차 차분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변환된 그래프에서 우리는 주기 변동이 규칙적이고, 더 이상 일방적인 방향으로 증가, 감소하는 추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1차 차분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디키-풀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리즈가 정상과정 움직임을 재확인하였다( $Z(t) = .5127$ ).

다음으로  $ARIMA(p, d, q)$  모형에서 자기회귀  $AR(p)$ 의  $p$ 차수와 이동평균  $MA(q)$ 의  $q$ 차수를 알아내야 한다.  $q$ 차수를 식별하는 방법은 자기상관(autocorrelation) 플롯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 5〉는 1차 차분을 한 지지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빗금친 95% 신뢰구간에 어떤 시차수도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q$ 차수는 0임을 알 수 있다.  $p$ 차



〈그림 5〉 1차 차분을 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의 자기상관함수(ACF)



〈그림 6〉 1차 차분을 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의 편자기상관함수(PACF)

수를 식별하는 방법은 편자기상관(partial autocorrelation) 플롯을 이용한다. <그림 6>은 1차 차분을 한 지지율의 편자기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빗금친 95% 신뢰구간을 벗어난 어떤 시차수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p$ 차수는 0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ARIMA( $p, d, q$ ) 모형은 1차 차분(difference)이 포함된 ARIMA(0, 1, 0) 모형이다.

## V.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

ARIMA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모델 1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한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단순한 특정 이슈의 강조가 대통령의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적 이슈 혹은 국내정책에 대한 단순한 강조는 대통령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방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은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와 정책 수행을 위한 대국민 설득 노력이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나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레토릭 변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특정 정책이나 사건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악화될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변명하는 레토릭을 구사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거나 현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를 도모할 수 있다. 즉, 대통령 레토릭과 지지도의 역관계는 대통령이 의제설정을 주도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대해 변명하는 자세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각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레토릭의 스타일이 레토릭과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한편, 외교/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과 반복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슈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관계에서도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교/대북/안보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인식

4) 대통령 레토릭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본 논문 심사위원에 의한 것이다. 통찰력 있는 설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내정책이 현 시점에서 당면한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나쁘게 평가하였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은 국내정책 부문(예를 들면, 공정사회, 복지, 교육, 다문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못미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슈가 주요 현안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가설은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은 특정 이슈의 강조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그 이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책 수행으로 반응하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모델 1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바로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테스트한 것이다. 시계열 분석 결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강조와 국민들의 당면 현안으로서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부합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99퍼센트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내정책에 대한 언급 및 반복과 국민들의 국내정책의 중요성의 일치는 통계적으로 90퍼센트 수준에서 유의미하여(그 강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작용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교/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와 국민들의 중요성 인식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대통령 지지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해보자. 모델 2에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미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대통령 지지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가상준(2006)과 전용주(2006)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 경제 차원에서 회고적 평가나 전망적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한편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 중 하나의 변수(국내정책 상호작용 변수)만 제외하고 모델 2에서도 강도 및 방향이 일치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은 정치적 사건들의 영향력과 대북 관련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테스트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브리핑 자료와 한국갤럽의 데일리 정치지표를 분석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은 긍정적 사건으로, 반대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은 부정적 사건으로 코딩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가상준(2006), 전용주(2006)는 부정적 사건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부정적 사건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은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사건의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대하는 방향대로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호재가 될만한 사건들, 이를테면 UAE 원전 수주, G-20 정상회담, 아덴만호 구출작전 성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등은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북 관련 국기아래 결집효과의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발견되지 않았다(가상준 2006). 모델 3에서 레토릭과 주요 이슈, 상호작용 변수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로는 외교/대북/안보 상호작용의 변수, 대통령의 외교/대북/안보 레토릭, 국민들이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외교/대북/안보 문제다. 앞의 두 변수들은 모델 1, 2에서는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변수들이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외교/대북/안보 이슈는 전 모델을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국가 전체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대통령의 지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나쁜 국가 경제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 2와 모델 3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모델 3의 결과를 통하여 프라이밍 효과를 완전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고 난 뒤 프라이밍 효과가 거의 사라지거나 의미 없이 나타난 주 이유는 시민들의 현안 인식과 같은 적합한 데이터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에서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의 레토릭 프라이밍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이 연구가 프라이밍의 부분적 효과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모델 1, 2가 보여주는 것처럼 프라이밍과 대통령의 지지도의 직접적 관계, 그리고 경제 상황 관련 변수들이 포함된 확장 모델에서는 여전히 프라이밍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라이밍 효과의 완전 부정보다는 대통령의 레토릭 프라이밍이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하면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가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수



〈표 2〉 ARIMA 회귀분석: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프라이밍 효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경제 레토릭	-.129*** (.036)	-.110** (.040)	-.076 (.051)
국내정책 레토릭	-.092* (.042)	-.095* (.043)	-.062 (.060)
외교/대북/안보 레토릭	.027 (.032)	.038 (.030)	.121* (.051)
경제 현안	-.044 (.041)	-.022 (.035)	.041 (.056)
국내정책 현안	-.091* (.038)	-.084* (.039)	-.043 (.055)
외교/대북/안보 현안	.073* (.037)	.087* (.037)	.165** (.062)
경제 상호작용 변수	.010*** (.002)	.009*** (.002)	.004 (.005)
국내정책 상호작용 변수	.003 <sup>†</sup> (.001)	.002 (.002)	.0001 (.002)
외교/대북/안보 상호작용 변수	-.0001 (.001)	-.001 (.001)	-.005* (.002)
소비자 물가 지수		-3.325* (1.368)	-4.269* (1.989)
회고적 개인 경제평가		.201 (.363)	.465 (.437)
전망적 개인 경제평가		-.203 (.314)	-.440 (.368)
긍정적 사건			1.103* (.550)
부정적 사건			.441 (.727)
국기아래 결집효과			-1.711 (1.476)
절편값	-.118 (.831)	-.206 (.778)	-.183 (.791)
sigma	4.485*** (.731)	4.200*** (.757)	3.721*** (.664)
<i>n</i>	44	44	44
Log likelihood	-125.5432	-121.7869	-117.5119
Wald	32.79***	43.09***	66.88***

\*\*\* $p < .001$ , \*\* $p < .01$ , \* $p < .05$ , <sup>†</sup> $p < .10$ , two-tailed test

주: 1) ARIMA(0, 1, 0) 모형이 사용된 회귀분석 모델이다.

2) 종속변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3) 괄호 안은 표준오차

준에서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이슈에 대한 강조,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국민들이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경제 문제와 결부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 현안으로서 외교/대북/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중요성 인식은 전 모델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통령의 단순한 특정 이슈의 강조가 반드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대통령의 특정 이슈의 강조와 함께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중요성 인식이 뒤따를 때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데이터의 한계, 분석 기간의 불일치 및 사례수 부족,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대외적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하여 허니문 효과, 대외정책 평가, 집권당과 야당의 지지율의 영향력은 테스트하지 못하였다.

## VI. 결론

이 논문은 그 동안 정치학계에서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 연구에 있어 간과했던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한국에서 미국처럼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관련 데이터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당면 현안 국정 과제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발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면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행, 대외 및 안보 정책 수행, 기타 정치상황적 조건들(허니문 효과, 정치적 사건들, 언론 보도, 정당 지지율)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국정 의제를 설정하고 원활한 의제 수행을 위한 대국민 설득 작업도 지지율 상승에 주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이슈들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선택하여 강조, 반복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 조성 노력을 벌이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한 현저성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현저하게 각인된 그 이슈가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바라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될 때, 그 이슈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판단 잣대로 활용되면서 대통령 지지 변동

의 유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대통령의 특정 이슈에 대한 강조와 반복, 그리고 국민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의 상호 결합 여부다. 사실상 일반 개인들은 다면적인 기준들에 근거해 정치적 대상을 평가할 인식적 능력이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호의적인 국정 수행 평가를 얻기 위하여 레토릭의 프레이밍을 활용할 전략적 유인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문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포스팅된 국민들의 정책 관심사 글들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레토릭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대통령의 레토릭 프레이밍 효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시민들의 주요 현안을 차선책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글들을 통하여 측정하였지만 타당성에 있어서 신뢰가 좀 떨어진다. 또 분석 기간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 기간을 분석 단위로 삼은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또 관련 데이터의 부재,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대외 상황적 조건 등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지지도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한국 대통령 지지도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 정치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막강하다. 그러나 막강하게 휘두르는 대통령의 권력이 정통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은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기인한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대통령은 각종 의제 설정과 추진에 있어 유리한 정치적 상황들과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 지지도를 연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한 대통령 레토릭의 프레이밍 효과의 연구가 한국 대통령 평가와 리더십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연구 성과를 풍부히 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일 2013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30일

## 참고문헌

- 가상준. 2006.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세계 지역연구논총』 24권 1호, 27-46.
- 가상준·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61-85.
- 동아시아연구원. 2013. “여론브리핑.” [http://www.eai.or.kr/type\\_k/public\\_panelList.asp?code=kor\\_report&catcode=&category=24&searchtype2=2](http://www.eai.or.kr/type_k/public_panelList.asp?code=kor_report&catcode=&category=24&searchtype2=2) (검색일: 2013. 6. 20).
- 문우진. 2012.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6집 1호, 175-201.
- 아산정책연구원, 2013. “여론조사보고서.” [http://www.asaninst.org/03\\_publications/report\\_list.php?type=research\\_report](http://www.asaninst.org/03_publications/report_list.php?type=research_report) (검색일: 2013. 6. 20).
- 이한수. 2012.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 그 효과와 역효과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2호, 289-312.
- 전용주. 2006.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의 탐색적 구축.” 『21세기정치학회보』 16집 1호, 67-89.
- 조성대·한귀영. 2010. “국정지지, 정당지지, 그리고 경제전망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비대칭효과(Asymmetric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집 2호, 163-186.
- 한국갤럽. 2013. “데일리 오피니언.”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검색일: 2013. 6. 22).
- Baker, William D. and John R. Oneal. 2001. “Patriotism or Opinion Leadership?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 No. 5, 661-685.
- Brace, Paul and Barbara Hinckley. 1993. “Presidential Activities from Truman through Reagan: Timing and Impact.” *Journal of Politics* 55. No. 2, 382-98.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5. “The Impact of Events on Presidential Popularity: The Johnson and Nixon Administrations.” In Aaron Wildavsky, ed. *Perspectives on the Presidency*, 136-147. Boston: Little, Brown.
- Clarke, Harold D. and Marianne C. Stewart. 1994. “Prospections, Retrospections, and Rationality: The Bankers Model of Presidential Approval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No. 4, 1104-1123.
- Cohen, Jeffrey E. 1995.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American Journal of*

- Political Science* 39. No. 1, 87-107.
- \_\_\_\_\_. 1997. *Presidential Responsiveness and Public Policy Mak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ruckman, James N. and Justin W. Holmes. 2004. "Does Presidential Rhetoric Matter? Priming and Presidential Approval."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 No. 4, 755-778.
- Druckman, James N., Lawrence R. Jacobs, and Eric Ostermeier. 2004. "Candidate Strategies to Prime Issues and Image." *Journal of Politics* 66. No. 4, 1205-1227.
- Edwards, George C. III, William Mitchell, and Reed Welch. 1995.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The Significance of Issue Sal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No. 1, 108-134.
- Edwards, George C. III and Matthew Eshbaugh-Soha. 2000. "Presidential Persuasion: Does the Public Respon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United States. November.
- Eichenberg, Richard C., Richard J. Stroll, and Matthew Lebo. 2006. "The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 No. 6, 783-808.
- Erikson, Robert S. 198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esidential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No. 2, 567-573.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10.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 Content, and Impact*. 10<sup>th</sup> edition. New York: Pearson.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ir, Ray C. 1978, "The Effects of Economic Events on Votes for Presid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 No. 1, 159-173.
- Hetherington, Marc J. and Michael Nelson. 2003. "Anatomy of a Rally Effect: George Bush and the War on Terrorism."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6. No. 1, 37-42.
- Hibbs, Douglas A. Jr. 1979. "The Mass Public and Macroeconomics Performance: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oward Unemployment and Inf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No. 4, 705-731.
- \_\_\_\_\_. 2000. "Bread and Peace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Public Choice* 104. No. 1-2, 149-180.
- Hill, Kim Quaille. 1998. "The Policy Agenda of the President and the Mass Public: A Research Validation and Exten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 No. 4, 1328-1334.
- Iyengar, Shanto and Donald R. Kinde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yengar, Shanto, Donald R. Kinder, Mark D. Peters, and Jon A. Krosnick. 1984. "The Evening News and Presidential 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No. 4, 778-787.

Kelleher, Christine A. and Jennifer Wolak. 2006. "Priming Presidential Approval: The Conditionality of Issue Effects." *Political Behavior* 28 No. 3, 193-210.

Kernell, Samuel. 1978. "Explaining Presidential Popularity: How Ad Hoc Theorizing, Misplaced Emphasis, and Insufficient Care in Measuring One's Variables Refuted Common Sense and Led Conventional Wisdom Down the Path of Anomal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No. 2, 506-522.

\_\_\_\_\_. 1997. *Going Public: New Strategi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Washington, DC: CQ Press.

Kinder, Donald R. 1981. "Presidents, Prosperity, and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5. No. 1, 1-21.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No. 2, 129-161.

Kramer, Gerald H. 1971. "Short Term Fluctuation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No. 1, 131-143.

Lee, Jong R. 1977. "Rallying 'Round the Flag': Foreign Policy Event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7, 252-256.

MacKuen, Michael B. 1983.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 No. 2, 165-192.

MacKuen, Michael B., Robert S. Erikson, and James A. Stimson.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No. 3, 597-611.

McAvoy, Gregory E. and Peter K. Enns. 2010. "Using Approval of the President's Handling of the Economy to Understand Who Polarizes and Wh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40. No. 3, 545-558.

Miller, Joanne M. and Jon A. Krosnick. 1996.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Evaluations." In Diana Muts, Paul M. Sniderman, and Richard A. Brody, eds. *Political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79-100.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_\_\_\_\_. 2000.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Evaluations: Politically



- Knowledgeable Citizens Are Guided by a Trusted Sou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No. 2, 295-309.
- Monroe, Kristen R. 1978. “Economic Influences on Presidential Popularity.” *Public Opinion Quarterly* 42. No. 3, 360-369.
- Mueller, John E. 1970.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 1, 776-792.
- \_\_\_\_\_. 1973. *War, Presiden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Wiley.
- Nickelsburg, Michael and Helmut Norpoth. 2000. “Commander-in-Chief or Chief Economist? The President in the Eye of the Public.” *Electoral Studies* 19. No. 2-3, 313-332.
- Norpoth, Helmut. 1984. “Economics, Politics, and the Cycle of Presidential Popularity.” *Political Behavior* 6. No. 3, 253-273.
- \_\_\_\_\_. 1996. “Presidents and the Prospective Voter.” *Journal of Politics* 58. No. 3, 253-273.
- Neustadt, Richard E. 1990.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New York: The Free Press.
- Oneal, John R., Brad Lian, and James H. Joyner, Jr. 1996. “Are the American People “Pretty Prudent”? Public Responses to U.S. Uses of Force, 1950-1988.”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No. 2, 261-280.
- Ostrom, Charles W. and Brian Job. 1986.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No. 2, 541-566.
- Ramirez, Mark D. 2009. “The Dynamics of Partisan Conflict on Congression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 No. 3, 681-694.
- Sigelman, Lee and Kathleen Knight. 1983. “Why Does Presidential Popularity Decline? A Test of the Expectation/Disillusion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7. No. 3, 310-324.
-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effrey M. 2002.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2<sup>nd</sup> ed. Mason: Thomson.

## 부록 1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사건들 (2008년 12월~2012년 8월)

년/월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2008/12		국회폭력사태
2009/1	민주당 의원들 골프외유 파문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용산참사
2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 한미정상회담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	
7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 사퇴 미디어법 강행
8	경제지표 개선 남북관계해빙무드(현정은 회장 방북)	
9	9·3 개각 중도실용주의 이명박-박근혜 회동	
10		더블딤 우려 청와대기강해이 사건 정운찬 총리후보 도덕성 논란 세종시 갈등 심화
11	4대강 기공식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사과
12	한명숙 전 총리 구인 대북 타미플루 지원 UAE 원전 수주	
2010/1	세종시안 입법예고	
2	동계올림픽	이명박-박근혜 강도론 공방

년/월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3	한나라당 증진협의체 구성	여권지도부 각종 설화
4		한명숙 전 총리 무죄
6		여당 6·2 지방선거 패배
7	친서민 행보	사찰 파문
8	8·15 경축사(공정사회 구상)	
9	신임 총리 지명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과 사임
10	G-20 정상회담 남북이산가족 상봉	
2011/1	아덴만호 구출작전 성공	
2		남북대화 결렬 구계역 파동 군비리 사건
4		4·27 재보선 야권 승리
6	반값등록금 초과이윤공유제 공직비리척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성
7	한나라당 전당대회 해외순방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9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안풍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10		여당 서울시장보궐선거 패배
11	한미FTA 비준 처리	
12		D-DOS 파문
2012/1	한나라당 비대위 구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살포
2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합당 한미FTA 발효일 발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표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통합당 입당

92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2013)

년/월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3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 새누리당 김무성 '백의중군' 핵안보정상회의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북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4	김용민 과거 막말 논란 19대 총선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민간인 사찰 파문 심화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 북한 위성탑재 로켓발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금품수수 시인
5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62개 쟁점법안 통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 여수 엑스포 시작	박영준 전차관 구속
6	임수경, 탈북자관련 막말논란 새누리 6월 세비반납 결의 새누리 국회의원 평생연금법 전면 폐지 추진	19대 국회 개원 무산 새누리당 대선 경선 룰 관련 진박-비박 갈등 심화 택시파업/화물연대 파업 검찰 이상득 소환 예고
7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의혹관련 이상득-정두언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파문 이상득 구속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8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가결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확산

## 부록 2

대북 관련 안보위기 사건들(2008년 12월~2012년 8월)

년/월	안보위기 사건
2009/4	북한 로켓 발사
5	북한 2차 핵실험
11	3차 서해교전
2010/1	북한 NLL 포사격
3	천안함 침몰
5	천안함 발표/천안함 담화
11	북한 연평도 포격
12	연평도 피격 이후 군사적 대응방안
2012/3	북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4	북한 위성탐재 로켓발사

ABSTRACT

---

## Presidential Rhetoric and Korean Presidential Job Approval

Young Hwan Park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literature has little shown that Korean presidents make efforts in setting the public's agenda and persuading the Korean public in order to enhance their approval ratings. Indeed, presidents prime a specific issue among many issues and allow citizens to attach personal importance to the issues. When an issue is personally important, citizens are cognitively involved in it. As a result, presidents capitalize some issues to be salient to citizens and let them to evaluate president's job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 issues. This article uses president Lee Myung-bak's weekly radio addresses to examine the priming effect of presidential rhetoric. Time-series analysis indicates that president Lee Myung-bak's rhetorics partially explain his approval ratings. This empirical analysis contributes to create new data sets regarding presidential job approval and broaden research of presidential leadership.

**Keywords:** presidential job approval, rhetoric, priming, priming effect, issue importance